

광주매일신문 제10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제7강 'K팝, 혁신과 열정의 가치'

임진모 대중음악평론가

“K팝 스타 성공 비결은 끊임없는 노력·혁신”

삶의 질 향상 위해 '문화·예술과 접촉' 중요성 조명 블랙핑크·조용필·BTS 통해 '포용·노력' 가치 강조

“BTS, 블랙핑크 등 세계 최정상 K팝 스타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끊임없는 노력과 혁신입니다.”

광주매일신문 주최로 지난 13일 서구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제10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제7강에서 임진모 대중음악평론가가 'K팝, 혁신과 열정의 가치'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임 평론가는 본 강의에 앞서 과거만 하더라도 사치로 여겨졌지만 오늘날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한 '삶의 질'에 대해 언급하며 삶의 질을 확보·증진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는 지에 대해 원주들에게 물었다.

임 평론가는 질문의 답으로 '재정적 풍요', '생각하는 힘' 그리고 '문화·예술과의 접촉'을 꼽으며 “우리나라는 현재 책 열독률, 라디오 청취율이 세계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것과 함께 음악까지도 소음으로 여기고 있다”며 “책과 음악을 접하지 않고서는 결코 행복할 수도,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

한 뒤 본격적인 강의를 열었다.

임 평론가는 최근 음악계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뉴진스', '에스파', '지코', '아이브', '(여자)아이들'의 사진을 차례대로 보여준 뒤 이들이 누군지 아는 사람 있냐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임 평론가는 “사회적으로 성공할수록 문화를 즐기거나 하는 서양과 달리 한국은 문화에 더욱 소홀해지는 것 같다”며 “문화를 챙기고 알아가려 노력한다면 스스로의 마음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등 여러가지를 바꿀 수 있다”고 강의의 화두를 던졌다.

이어 임 평론가는 현재 국내를 넘어 세계에서 활약하며 국위선양하고 있는 K팝 스타들을 언급하며 이들의 성장 과정을 통해 강의의 핵심인 '노력', '포용', '용기'에 대해 설명했다.

블랙핑크를 예로 들며 “과거만 하더라도 혈연·학연 등 연고 중심의 아티스트들이 많았지만 오늘날에는 공통 지점이 하나도 없는 이들이 그룹을 형성, 세계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이고



본보 주최로 지난 13일 오후 서구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제10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제7강에서 임진모 대중음악평론가가 'K팝, 혁신과 열정의 가치'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있다”며 “이들이 강한 이유는 끈끈한 멤버십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 평론가는 “K팝이 가치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에 덕목으로 여겨졌던 점잖음, 차분함 또한 상황에 따라 필요하지만 마음을 열고 포용할 수 있는 용기와 자세를 가져야만 상대를 온전히 볼 수 있을뿐 아니라 더 큰 성공을 꿈꿀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가왕 조용필, 데뷔 10주년을 맞은 BTS의 일대기를 부연하며 노력의 가치에 대해 강조

했다.

임 평론가는 “성공한 이들 모두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노력'”이라며 목에서 피가 나도록 죽어라 노력하고 혁신을 게을리하지 않아 64세의 나이로 '바운스'라는 곡을 통해 음원차트 1위를 석권했던 조용필, 하루에 13시간씩 1년 반 동안 출연을 해 오늘날 K팝의 정체성이자 가치를 견인하는 그룹으로 성장한 BTS 사례를 되짚으며 노력과 혁신의 가치를 재차 언급했다.



담양 고서면 지사협, 어르신에 음식·차 대접

담양군 고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4일 “전날 대가식당과 카페 유의 후원으로 이뤄진 민간 후원사업 '대대손손, 가가호호 사랑을 나누어 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고서면 서광천 대가식당 대표와 감지민 카페 유대표의 도움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고서면 홀로 사시는 어르신 15명을 초청해 따뜻한 음식과 차를 대접하며 어르신들과 소통하고 마음의 위로를 전했다.

두 업체는 “따뜻한 식사와 차 대접이 이웃의 일상에 작은 기쁨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매일 이웃을 초청해 의미 있는 시간을 선물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행사를 계기로 고서면과 협약해 지역 내 이웃을 위한 지속적인 식사와 음료 봉사를 약속했다.

윤재현 고서면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힘써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고서면에서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더욱 세심히 행하겠다”고 전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서부소방, 응급처치로 생명 구한 대학생 표창

광주 서부소방서는 14일 “시내버스에서 쓰러진 시민을 응급처치해 생명을 구한 대학생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수상의 주인공은 호남대학교 이명학(스포츠레저학과)·이준하(중국어학과)·정주현(응급구조학과) 학생으로, 이들은 지난날 10일 버스에서 70대 승객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심폐소생술 등 초기 응급처치에 나섰다. 그 덕에 쓰러진 시민은 구급차 이송 중 구급대원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을 회복했다.

서부소방은 공로를 높이 평가하며 이날 이준하(사진 왼쪽)·정주현 학생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이명학 학생의 표창장은 학교를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학생들은 “평소 심폐소생술을 익혀뒀던 것이 구급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됐다”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과분한 상을 받아 감사하다”고 입을 모았다. /안재영 기자



광주고용노동청, 건설현장 안전점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14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관내 건설현장을 방문,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감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광주 북구 소재 한 건설현장을 방문한 노동청은 현장 전반을 둘러보고 안전 보호구 착용과 위험요인 등에 대해 점검했다.

특히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각종 운영질환 발생 및 장마철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도 함께 살폈다. /안재영 기자



광주매일신문, 은누리아동센터 'NIE 2차 순회교육'

지역신문 발전기금 미디어 교육사업에 선정돼 지역 아동센터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광주매일신문이 지난 13일 광주 북구 은누리지역아동센터를 방문, 신문만들기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1차 순회교육에서 배웠던

기사의 특성과 기사 쓰기 실제 사례들을 신문 편집디자인의 원리를 이용해 디자인하는 방법들을 공부했다.

광주매일신문은 각 지역 아동센터 순회교육이 끝나면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신문을 공모, 시상식을 갖는다. /박희중 기자

초록우산 광주본부·노블리스뷰티아카데미 광주본원 협약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는 “최근 노블리스뷰티아카데미 광주본원과 '뷰티미용 꿈나무 재능 개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뷰티·미용분야로 진로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아동들의 진로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아동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노블리스뷰티아카데미는 수업에 필요한 재료비 전액을 지원하며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김애란 노블리스뷰티아카데미 광주본원 대표는 “지역 내 뷰티·미용 꿈나무들이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배움의 기회마저 가져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봤다”며 “아이들이 뷰티·미용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닦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성학 기자



전남도, 보성서 '민·관·경 교통안전 캠페인'

전남도는 14일 보성 벌교역 일원에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통해 교통사고로부터 도민 생명 보호를 위한 '민·관·경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는 전남도와 전남도의회, 보성군, 전남경찰청, 전남도교육청, 교통안전공단, 전남교통연수원, 전남도세마을회, 바르게살기 전남협의회, 녹색어머니회 등 13개 기관·단체 200여명이 함께 했다.

참가자들은 ‘차만손(차를 만나면 손을 들어요)’ 현수막과 교통안전 손팻말을 들고 벌교역 주변을 걸으며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전남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문금주 행정부지사는 “세계로 응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생활 속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일상생활 가까이 노출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양보와 배려하는 선진 교통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민선 7기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시선1’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2017년 387명에서 지난해 말 202명으로 약 48%를 줄였다.

올해부터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시선2’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2026년 128명까지 줄일 방침이다. /김재정 기자



동구 “고향사랑 기금사업 공감 기부 잇따라”

광주 동구는 14일 “고향사랑 기금사업 3가지(▲광주극장 100년 프로젝트 ▲E.T(East Tiger) 야구단 지원 프로젝트 ▲어린이 재능발견과 꿈 키움 프로젝트)가 공감을 얻어 실질적인 기부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순환도로투자(주)·광주순환(주)(대표 이영훈)은 최근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고자 기부에 동참, 지정기부금으로 100만원, 법인 명의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500만원 등 총 600만원을 기탁했다.

이영훈 대표와 직원들이 기부한 법인기탁금은 향후 동구장애인복지관에 후원될 예정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전국지자체 중 선도적으로 시행 중인 고향사랑 기금사업 발표를 계기로 국민적인 관심과 더불어 실질적인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며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은 물론, 기부자와 지역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광주대 사회복지학부 ‘까꿈’, 광주 청소년총회 공감상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소모임 ‘까꿈’이 ‘광주시 청소년총회’에서 공감상을 수상했다.

14일 광주대에 따르면 사회복지학부 소모임 ‘까꿈’은 광주시 참여기자들이 참가해 ‘내가 살고 싶은 광주’를 주제로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하는 ‘청소년총회’에서 ‘진로 탐색 기회 및 청소년 노동인권 권리 보장을 위한 청소년 근로 장학제도 신설’을 발표해 가장 많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발표자 송경진 학생은 “장학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같이 총회를 준비한 동구 청소년 참여위원들과 끝까지 믿고 함께해준 기



관 담당자들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게 돼 뿌듯하다”고 말했다. /김대기 기자

인사

광주 서구 ◇5급 승진 ▲체육관광과장 직무대리 이형숙

부음

▲순정남씨 별세, 손일갑(광주매일신문 지역특집부(동목포) 부국장대우)씨 부친상=발인 15일(목) 오전 9시 광주 스카이장례식장 110호(02-951-1004).